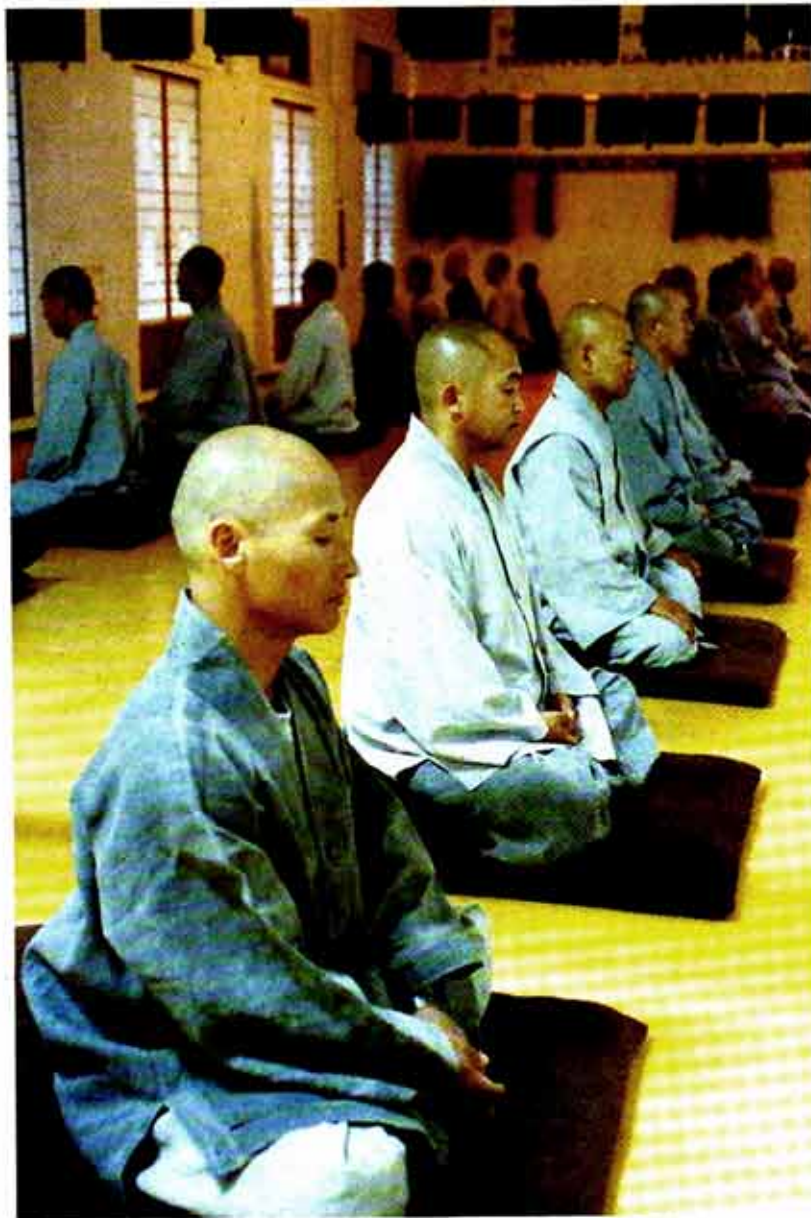


“대자유 찾아가는 길은 오직 禪뿐이다”



◁법주사 총지선원의 25명 수좌들은 8일 저녁 7시 죽비소리와 동시에 화두를 들었다.

법주사 총지선원의 하안거 결제

“시방(十方)의 무리가 한 자리에 모여, 제각기 무위법(無爲法)을 배우니, 이곳이 부처를 선포하는 도량이며, 마음을 텅 비워 깨달아 급제하여 돌아가네.”

일찍이 마조 도일(709~788 스님)은 그의 선원인 선봉장(巖峰)에서 참문하는 수행자들을 보고 모두 부처들이라고 말했다.

마조와 석두 회천(700~793)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선종은 백장 스님의 선원정규 제정을 계기로 선원생활을 체계화했다. ‘수선(修禪)의 공간’인 선원(禪院), 특히 우리나라 선원의 전통은 오히려 선종의 발원지인 중국보다 옹골체 지켜오고 있다. 또한 1600여 년 동안 불교가 연년이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기동이기도 하다.

하안거 결제 날 찾은 보은 법주사주지 지명. 속세의 온갖 욕망을 멀리 떠나 있다는 속리산(俗離山) 초입부터 티끌을 이룬 수목 사이로 짙게 깔린 새벽 안개가 발길을 잡는다. 금강문과 팔상전을 지나 대웅보전에서 오른쪽으로 비껴들어 긴 담장 너머 큰 화이 날개를 짙게 감싸고 있는 전각이 보인다. 그곳이 바로 부휴 선수(1543~1615) → 벽암 각성(1575~1660) → 금오 태전(1896~1968) 스님의 선맥이 이어지고 있는 총지선원이다.

선원에는 수좌들이 하안거 입방 절차를 마치고 결제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법주사 총지선원 하안거에는 60여 년 가까이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지용 스님(대홍사·77세)을 비롯해 비구계를 갖 받은 정경 스님(법주사·33세) 등 모두 25명이 동참한다. 많게는 50년 이상의 법랍 차이가 나지만 모든 개종들은 오직 깨달음만을 위해 철저따마하는 도란일 뿐이다. 이들은 대부분 제방선원에서 수행해 온 수좌들이지만 그 중에는 오랜 동안 주지·군법사·유학생 등의 생활을 하다 입방한 스님들도 있다. “선리(禪理)가 없다면 출가 수행자가 아니다. 대자유를 찾아가는 길은 오직 선뿐이다”는 그들의 말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장부의 기상이 서려 있다.

술 향기가 물린 풍기는 선원 뜰을 거닐고 있던 지용 스님은 “쉬기 위해 왔다”며 “몸과 마음을 들뜬 깨달음조차 집착하지 말고 오직 화두만 참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소가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서는 충분히 만족하여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불도의 수행에 철저히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고 답답하게 수행해야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안거를 위해 방부를 들인 수좌들은 보통 10여일 전에 선원에 들어와 결제 준비를 한다. 사실 삼의일 발(三衣一鉢)이 전부인 수좌들에게 결제 준비란 게 특별한 것은 없다. 쌀, 배, 찹쌀, 소일 찌기 등이 전부다. 그 중에서 대웅의 공의로 결정되는 소일 찌기는 원만한 정진과 회향을 위한 결제 준비의 필수 과정. 선원에는 수좌들의 법명과 한자로 써어진 표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대웅의 소임을 알리는 용상 방(象榜)이다. 수좌들은 법랍과 안거 횟수에 따라 입승(齋僧자), 정통(齋僧자 보좌), 지객(손님잡대), 정통(정통장), 정소, 육두(육두 담당), 다각(다각준비) 등의 소임을 정해진다. 한 명도 빠짐없이 소임을 맡는 것이 소일 찌기의 원칙이다. 그리고 자리는 나이 나 경력에 상관없이 안거 연수(법랍)에 의해 정해진다.

선방에서 특히 큰길을 끄는 것은 양쪽 벽면 하단

안거 수좌의 계율

삼함(三緘)과 오관(五觀)

입승-지객-정통 등

공의로 소일짜기

不動과 無言 3개월

오직 화두와 씨름

에 붙어 있는 삼함(三緘)과 오관(五觀)이란 글귀다. 입승(齋僧) 스님은 “안거 중에 특별한 계율은 없다. 다만 삼함과 오관을 지키는 것이 안거 수행자의 기본이자 전부다”고 말한다. 삼함은 몸과 입 그리고 뜻을 삼가라는 뜻이며, 다섯 종류의 관법을 일컫는 오관은 진리의 이치를 관해서 보고 생각하는 의심을 끊는 진관(眞觀)을 비롯해 청정관(淸淨觀), 광대 지혜관(廣大智慧觀), 비관(悲觀), 자관(慈觀)을 말한다. 수좌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다. 이밖에 안거 수행에 있어 특별한 규칙은 없다. 다만 수행에 태만한 수행자가 생기면 대웅공사를 열어 퇴방시키면 그만이다.

해제와 결제가 따로 없다고 했다. 하안거 결제 법회를 3시간 여 일문 30명의 총지선원은 이미 결제에 들어간 듯 고요하다. 특히 가부좌를 틀고 화두와 씨름하는 몇몇 수좌들이 모습은 긴장감마저 감돈다.

오전 10시 30분,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총지선원을 비롯해 발골암 대흥선원, 복천암 복천선원 등 본말사의 선원 수좌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제 법회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주지 지명 스님은 “선원을 본래 부처인 그 사실을 철저히 자각해 부처가 되는 곳이다. 수좌들이 공부하는데 불협음이 없도록 잘 만들어 모시는 것도 큰 불공이며 공덕이다”며 사중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법회를 마치고 강원의 학인 스님들, 법주사 대웅 스님들과 정심공양을 함께 한 수좌들은 선원주변의 집초 풀기 울터를 마지막으로 모든 안거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석양이 속리산의 신록을 붉게 물들이는 시각 한 명씩 선방에 들어 벽을 향해 가부좌를 한다. 이 시각, 대웅보전에서는 저녁예불이 한창이다.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정각 7시를 알리는 순간 선방에는 죽비 소리와 동시에 입선에 들었다. 말과 움직임을 그리고 생각도 없다. 부동(不動), 무언(無言)의 선 수행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법주사 총지선원의 25명의 수좌들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3개월 동안 오직 화두만 참구할 것이다.

글=김종근 기자

(gam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o@buddhapia.com)

안거란 여름-겨울 두차례 3개월씩 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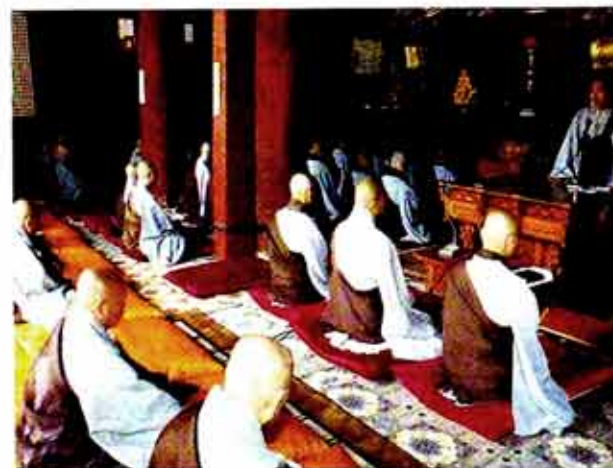
음력으로 4월 보름은 하안거(夏安居)가 시작되는 결제 날. 이번 하안거에는 해인총림 등 5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의 80여 선원 1700여명의 수좌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안거는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질병이 창궐하는 우기에 한 곳에 모여 산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우안거(雨安居)라고도 한다. 하지만 중국을 거치면서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으로 자리잡았고, 선이 꽃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어져 1천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안거가 있는데, 여름 수행을 하안거, 겨울 수행을 동안거라고 한다. 안거는 일반적으로 3가지 정진이 있다. 하루 8~

10시간의 일반정진, 하루 12~14시간하는 가행정진, 그리고 해제를 앞두고 용맹정진을 하는데 1주일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참선을 해야 하는 고행이다. 안거에서 수좌들이 가장 힘든 시기는 결제 후 30일 전후다. 법주사 총지선원의 한 수좌는 “결제 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날 때가 육체 심적으로 가장 괴로울 때”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퇴방하는 수좌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안거는 음력 4월 보름인 지난 8일부터 음력 7월 보름까지 한다. 특히 올해처럼 윤달이 있을 경우 선방에 따라 4개월 정진하는 곳도 있다. 안거를 시작하는 것을 결제(結禪)라 하고, 마치는 것은 해제(解禪)라 한다.



◁법주사는 8일 대웅보전에서 총지선원을 비롯해 발골암, 복천암 등 본말사 수좌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안거결제 법회를 가졌다.



◁하안거 결제에 앞서 선원 주변에서 집초 풀기 울터를 하고 있는 총지선원 수좌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버찌차

방자호란을 겪고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온갖 수치의 모욕을 당하고, 만주 벌판을 걸어오는 효종은 오직 북벌(北伐)계획뿐이었다. 효종은 등극한 뒤, 청나라 모르게 활과 창을 만들 나무를 구할 수 있는 표죽한 대안을 찾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고 서름시름 앓고 있었다. 효종이 울적한 심사를 달래느라 삼전도를 지나 남한산성에 오르자, 때마침 팔도

도총섭으로 승병을 일으켜 육전(陸戰)의 사명당에 버금가는, 해전(海戰)을 승리로 이끈 백안 스님이 남한산성 축조를 도려하던 중, 어가(御駕)를 보고는 달려와 효종의 근심을 소승이 헤아리겠노라 아뢰었다. 효종이 백안 스님에게 은밀히 청하여 묻자, 흰 종이로 뱃나무라 쓴지라! 이에 효종은 어둠이 일시에 걷히는 듯했다.

경의 생각이 중요사직을 지키고 조선을

검버섯·죽은개, 피부미용에 효과

웅성케 하리라. 이 때부터 전국에 뱃나무를 심게 했고 특히 백안 스님의 본찰인 지리산 화엄사와 쌍계사 계곡에는 뱃나무가 장려되었다. 서울 유아동도 개밭 전까진 뱃나무 단지가 남아 있었는데 수양을 벗이라고 하여 나무로 활을 만들고 검질로 활을 감아, 손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소름보다 성능이 우수했다.

화엄사에는 지금도 천연기념물 38호로 지정된 뱃꽃이 있어 효종의 북벌계획이 아직도 미완(未完)임을 말해준다. 1912년 독일 식물학자에 의해 일본의 국화인 뱃꽃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의 지리산으로 밝

혀졌다. 뱃나무의 용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뱃나무의 껍질을 영피 또는 화피라 하여 기침, 두드러기 피부염에 사용했고, 버찌는 식용으로 했다. 또 속취나 식중독의 해독제, 무좀과 습진 등에도 효험이 있다.

버찌는 뱃꽃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열매로 5월 하순경, 파란색에 붉은 기운이 감도는 버찌를 말려서 차를 만들어 마시면 좋다.

▶약식 연구가, <산새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버찌, 꿀, 맑은물

요리법 ① 달 익은 버찌가 좋지만, 이미 익은 버찌로 할 경우 잘 씻어 물기를 완전히 뺀다.

② 꿀을 넣고 살짝 버무리 줌(로터나 유리병에 담아 15일 정도 재워둔다.)

③ 마실 때는 뜨거운 물에다 ②의 즙을 1~2숟가락 넣고 꽃잎 1~2개를 띄워 마신다.

